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편집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KMI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회 회원사들('09.5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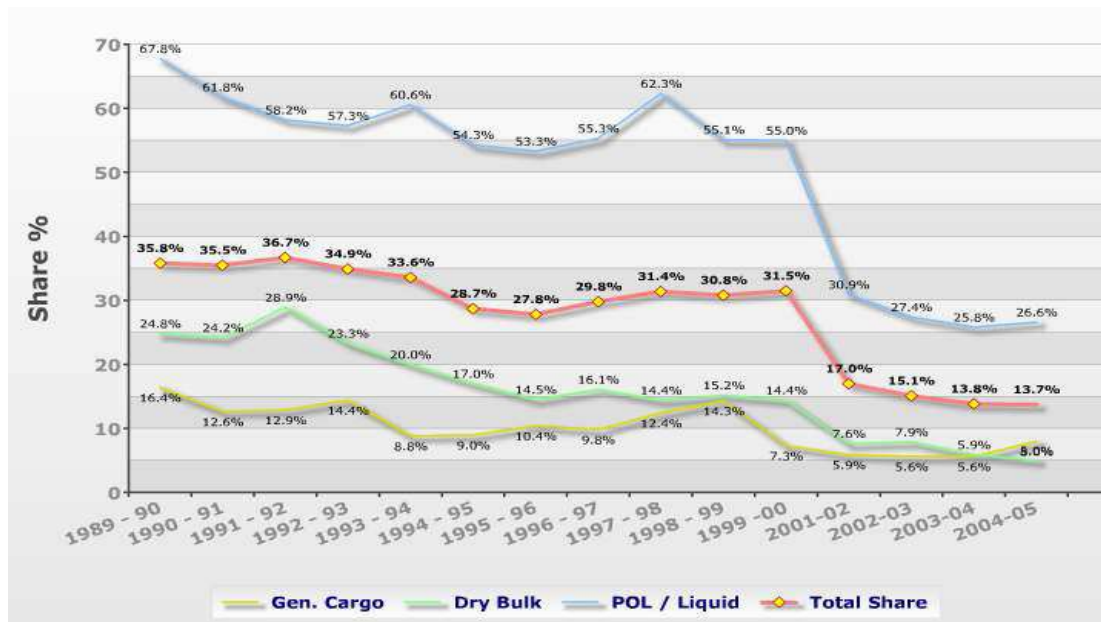
<목 차>

□ 인도 해운산업의 현황과 연안해운 육성정책	2
□ 일본 3대 선사 경영실적, 전망 및 투자계획.....	3
□ 러시아 Vostochny항, 지분 싸움에 휘말려.....	4
□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만 순위	6

□ 인도 해운산업의 현황과 연안해운 육성정책

- 인도 국적선대 및 국제무역량 수송비중(국적선 적취율)
 - 인도의 국적선은 884만 G/T(2007.1.1 인도선주협회)
 - 1980년대에 인도 국적선 적취율은 약 40%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약 12~13% 수준
 - 화학제품 24.7%, 건화물 6.3%, 컨테이너 적취율 3.6%

< 인도 국적선 적취율 변화 추이 >



자료 : 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 인도는 해안선의 총 길이가 7,517km에 달하나 인도 전체 화물량 중 연안해운의 수송 부담률은 약 7% 수준으로서 EU의 43%, 미국의 15%에 비해 매우 낮음
- 인도는 「1958년 해운법(Indian Merchant Shipping Act 1958)」제406조 및 제407조에 의거, 연안화물은 인도선사의 선박(용선 포함)에 의해서만 운송되도록 하는 연안 화물유보제도(Cabotage)를 시행 중에 있음
 - 선박의 부족 등으로 인도선사의 수송이 불가능 할 경우 인도 해운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외국적선의 수송이 가능
 - 인도의 컨테이너 수송 가능 연안해운사는
 - 1) Caravel Logistics, 2) Shreyas Shipping and Logistics , 3) Shipping Corp. of India(국영선사), 4) Seaways Shipping, 5) Jindal Waterways , 6) Vikram Logistic and Maritime Service 및 7) Kinship Shipping and Logistics 등 7개사

○ 인도 정부의 연안해운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내용

- 12개 중추항만에 기항하는 자국 연안선박에 대해 선석사용료, 접안료, 도선료 등 항비의 40%를 감면
- 또한 양하료, 적하료 등 컨테이너 하역비용의 40%를 감면

자료 : 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Indian Express Finance 2009.4.12,
Economic Times 2009.4.29, Live Mint 2009.5.1

□ 일본 3대 선사 경영실적, 전망 및 투자계획

- NYK(Nippon Yusen Kaisha)사, MOL(Mitsui OSK Line)사, K-Line(Kawasaki Kisen Kaisha) 등 일본 3대 글로벌선사의 2008.4~2009.3 경영실적 분석결과, 3사 모두 전년 동기(2007.4~2008.3)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
-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 3월까지의 경영전망(2009.4~2010.3)은 금년에 비해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
- 내년까지의 신조선 발주 등 신규 투자계획도 대폭 축소 계획

< 일본 3대선사의 경영실적 현황 >

	N Y K	M O L	K line
컨테이너 보유량(TEU/척)	413,876(115)	378,551(103)	324,442(95)
당기순익 (2009.3, 억엔)	561	1,300	512
전년도 당기순익 (2008.3, 억엔)	1,141	1,900	830
당기순익 전망 (2010.3, 억엔)	180	400	65
투자계획(억엔)	2,150	1,660	미확인

자 료 : AXS-Alphaliner '09.4.28, Fairplay International Shipping Weekly 2009.5.7

□ 러시아 Vostochny항, 지분 싸움에 휘말려

○ Vostochny항 개요

- 1973.12.27 개장된 항만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항만
- 1년 내내 입출항이 가능한 不凍港이며 주항로의 자연 수심이 22m에 달해 최대 15만 DWT 선박까지 접안 가능
- 1992.8 러시아 해운부는 Vostochny항을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로 전환 하였으며 이에 따라 Vostochny Port JSC가 모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 Vostochny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 Trans Siberian Railway)의 태평양 측 시발점
- Vostochny Port JSC에 따르면 모스크바까지는 14일, 핀란드까지는 12일, CIS국가들까지는 24일,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는 30일 소요



- Vostochny항의 항만시설 개요
 - 터미널은 품목별로 4개로 구분

터미널명	Universal Handling Terminal (PPK-1)	Coal Handling Terminal (PPK-3)	Petrochemical Terminal	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Services
처리화물	벌크, 일반화물	석탄	석유화학제품	컨테이너
선석수	8	2	17	4
선석길이	2.4km	762m	3.5km	1,284m
접안수심	6.5~16m	16m	6.5~16m	11.5~13.5m
총면적	132ha (132만m ² , 약40만평)	40ha (40만m ² , 약12만평)	미확인	73.4ha (73만m ² , 약22만평)

- 컨테이너터미널(VICS : 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Services)의 연간 처리능력은 40만 TEU로서 러시아 극동 최대의 컨테이너 터미널
 - VICS사는 아랍에미리트의 DP World사가 지분의 75%를, 러시아 최대의 철도 사업자인 N-Trans사가 지분 25%를 각각 보유한 합작사



- 작년도 Vostochny Port JSC의 지분 20% 매각 입찰에서 당초 Sibuglemet사가 낙찰되었으나 경쟁사인 Kuzbassrazrezugol사의 제소로 무효화되어 원점으로 복귀된 상황
 - Kuzbassrazrezugol사는 Iskander Makhmudov가 최대 주주이며 Vostochny Port JSC사 지분의 3/4을 보유
 - Sibuglemet사는 Anatoly Skurov(최대 주주)와 3개 기업이 각각 지분 소유

자료 : Vostochny Port JSC, 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Services, Lloyd's List 2008.8.15, Fairplay 2009.5.6

□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만 순위

- 2008년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은 2억 4,700만 TEU로서 2007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4.7% 증가
-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의 Guangzhou항이 1,100만 TEU를 처리, 18.8%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07년 세계 12위에서 2008년 세계 7위의 항만으로 급부상
- 세계 10대 항만에 중국 본토 항만이 5개로 과반을 차지한 것도 주목

< 2008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 >

단위 : 백만 TEU

2008년 순위 (2007년)	항만명	국가명	2008 처리량	2007 처리량	증감률(%)
1(1)	Singapore	싱가포르	29.97	27.93	7.3
2(2)	Shanghai	중 국	27.98	26.15	7.0
3(3)	Hong Kong	홍 콩	24.25	24.00	1.1
4(4)	Shenzen	중 국	21.40	21.09	1.5
5(5)	부 산	한 국	13.45	13.26	1.4
6(7)	Dubai	아랍에미리트	11.80	10.65	10.8
7(12)	Guangzhou	중 국	11.00	9.26	18.8
8(11)	Ningbo	중 국	10.80	9.35	15.5
9(6)	Rotterdam	네덜란드	10.78	10.79	-0.1
10(10)	Qingdao	중 국	10.32	9.46	9.1
11(9)	Hamburg	독 일	9.70	9.90	-2.0
12(8)	Kaohsiung	대 만	9.68	10.26	-5.7
13(14)	Antwerp	벨기에	8.66	8.17	6.0
14(17)	Tianjin	중 국	8.50	7.10	19.7
15(13)	Los Angeles	미 국	7.85	8.36	-6.0
16(16)	Port Klang	말레이시아	7.80	7.12	9.6
17(15)	Long Beach	미 국	6.49	7.31	-11.3
18(18)	Tanjung Pelepas	말레이시아	5.60	5.50	1.8
19(20)	Bremerhaven	독 일	5.50	4.89	12.4
20(19)	New York	미 국	5.48	5.30	3.3

자료 : Lloyd's List 2009.3.19

유재만 연구위원(02-2105-4964, yoojmn@kmi.re.kr)